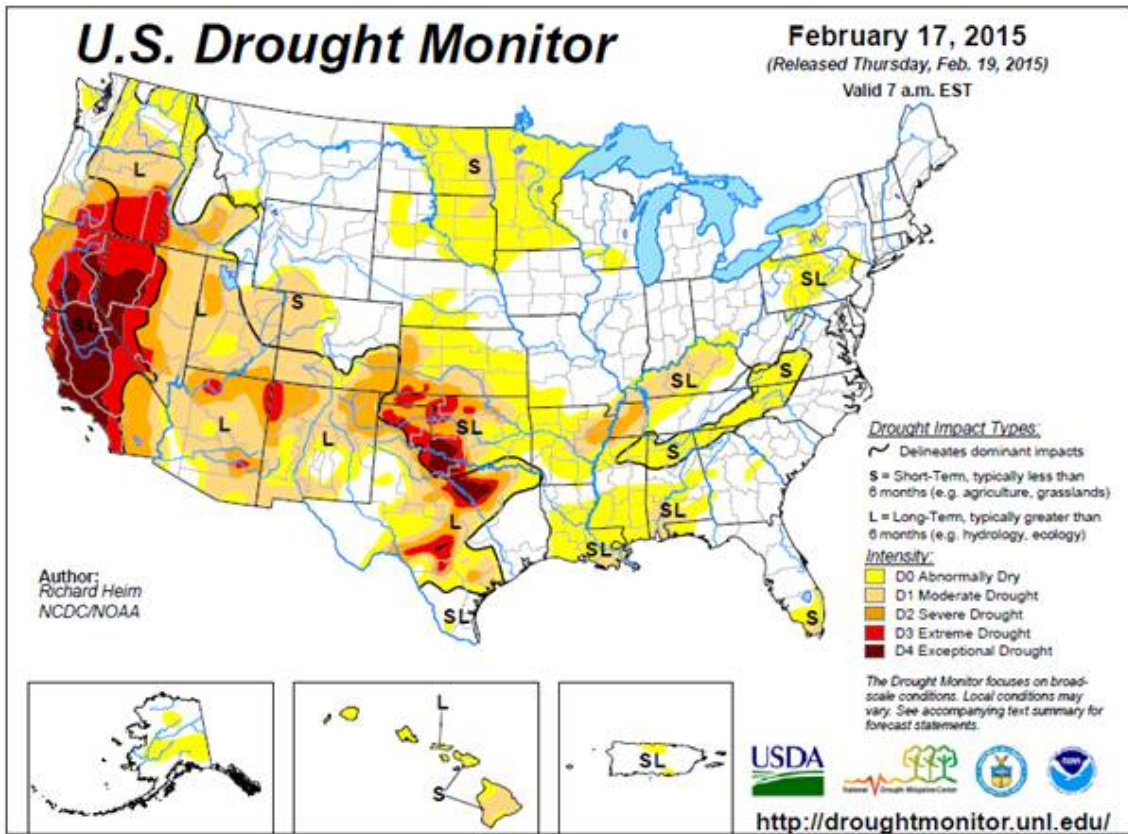


2월 19일 USDA 기후작황보고서(Volume 102, No. 7)

□ 미국 기후 현황(2/8~2/14)



유익한 강수량이 매우 따뜻하고 선호되지 않는 건조한 상태가 유지됨에 따라 주 초반에 북부와 중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다소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건조한 날씨는 북부 록키산맥과 태평양 북서부 지역에 발달하였으며, 북부 내륙산간의 서부 지역의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 20°F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부지역으로 갈수록, 건조한 날씨는 국가의 중부지역인, 대평원, 중서부, 중남부 지역을 뒤덮었다. 그러나 기온은 심각히 다양하게 변했으며, 미시시피 계곡유역에서는 서늘한 날씨가 나타났고, 고원 평야지대에서는 기록적으로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기도 하였다. 한편, 북부 권역에서 대서양 연안 지역의 주에 한정되어 강수량이 기록되었다. 후자의 지역인 남부 대서양 연안에는 비가 내렸고, 겨울에 지친 북동부 지역에서는 눈이 계속해서 축적되었다. 미시시피의 동부 지역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낮았고, 북동부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대비 평균 적어도 10°F 정도 기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 콘벨트에서 북동부지역에 이르기까지는 영하의 기온이 기록되었다. 한편, 북쪽 감글벨트 지역이기는 하지만, 북부 플로리다 지역까지 영하의

온도가 관측되었다. 중서부와 북동부 지역에서는 겨울 날씨로 인해 가축들의 스트레스가 지속되었으며, 특히나 북동부 지역의 경우에는 많은 양의 강설량이 측정되기도 하였다.

## □ 농업 현황 요약(2/9~2/15)

태평양 연안 일부 지역을 제외한 미국 전역은 대체로 건조한 날씨였으며, 주간 강수량은 2인치 이상으로 나타났다. 국토의 절반에 해당하는 동부지역의 경우 주간 기온은 평년보다 낮았고, 콘벨트와 북동부지역의 경우에는 평균 영하의 기온을 기록하였다. 미국 서부 지역의 경우 더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으며, 북부 록키산맥 일부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평균 15°F 이상 기온이 높았다.

## □ 세계 기후 현황(2/8~2/14)

■ 유럽: 대체로 온화하며, 건조한 날씨가 북부 지역의 경우 동면중인 작물 및 남부 지역의 경우 겨울 작물의 생육에 좋은 조건을 유지할 수 있었다. 고기압의 영향을 받은 많은 지역(북동부 프랑스, 폴란드, 발틱연안 주)에서는 대체로 건조하고 온화한 날씨가 형성되었다(평년대비 1-4°C 높음).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북부 재배지역에서는 보호적인 스노우커버의 결빙현상이 나타났지만, 기온은 겨울철 동사 또는 타는 현상에 따른 임계치를 상회하였다. 남부지역으로 갈수록, 더욱 서늘한 날씨(평년대비 2-4°C가 낮음)가 발칸 반도지역에 정착하였으며, 밤 최저기온은 영하 10-5°C로 겨울 작물을 위협하는 수준은 아니었다. 서늘한 날씨(평년대비 1-3°C가 낮음) 일지라도 스페인에서는 건조한 현상으로 인해 밀과 보리의 생육이 지연되었으며, 작물의 생육전망은 좋음/매우 좋음 상태를 유지하였다. 대체로 건조한 날씨 패턴에도 불구하고, 소량에서 적당량의 소나기(2-17mm)가 중부와 서부 프랑스, 영국에서 내렸고, 봄철 성장을 위한 적당하거나 충분한 수분 보유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

■ 구소련(서부): 온난한 날씨가 이 지역에 팽배하였으며, 일부 소량의 비가 내리거나 눈이 온 것으로 보고되었다. 주간 강수량은 소량(대체로 5mm 미만)정도였으며, 눈은 북부 재배지역에 내렸다. 주말에는 적당량에서 많은 양의 스노우팩(5-40mm)이 북부 우크라이나와 동부 및 중부 러시아 지역의 동면중인 겨울 곡물과 유채를 절연시켰다. 한편, 주요 겨울 밀 재배지역인 남서부 러시아의 경우 지속적인 온화함으로 인해 스노우커버의 결빙 상태가 유지되었다. 그러나 겨울철 동사는 온난한 날씨인 탓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 호주: 더운 날씨는 호주 동부지역에 널리 영향을 미쳤지만, 주요 여름작물 재배지역인 서부 지역에서는 고온 현상으로 인해 면화와 수수에 미치는 영향을 극소화할 수 있었다. 계절적으로 건조하고 따뜻한 날씨는 주요 면화와 수수 재배 지역인 남부 퀸즐랜드와 북부 뉴사우스웨일스 지역을 뒤덮었다. 이로 인해 조기에 파종된 작물의 건조에 좋은 영향을 미쳤고 미숙한 작물의 관개 수요를 증가시켰다. 중부와 남부 뉴사우스웨일스에서는 평년대비 높은 기온(평년대비 평균 2-5°C 높음)이 작물의 물 공급량을 증가시켰지만, 넓은 지역에 내린 비(5-25mm 이상, 국지적으로 더 많음)는 주 중반 이후에 수분 증발량을 멈추게 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주 초반 최고기온은 30°C 후반-40°C에 거의 육박하였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낮은 경우도 있었다.

■ 아르헨티나: 따뜻하고 비가 내리는 날씨는 여름 곡물, 유채, 면화가 성장하기 좋은 조건을 유지하였다. 가장 많은 양의 비(25-100mm)는 북부 농업 생산지역에 집중되었으며, 가장 많은 양(50mm 이상)을 기록한 곳은 Formosa에서 중부 Cordoba 지역이었다. 이 지역에서는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은 기온으로 인해 작물들이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일부 북부지역에서는 기온이 30°C 후반을 기록하였다. 더욱 건조한 날씨는 남부지역으로 갈수록 팽배하였으며, 총 강수량은 10mm 미만인 곳이 La Pampa와 Buenos Aires 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곳은 남부 Cordoba에서 Parana계곡 하류 지역 및 북부 Buenos Aires 지역으로 35mm이상의 비가 내렸고, 남부 Buenos Aires 지역도 마찬가지였다. 중부 아르헨티나 지역의 경우 주간 기온은 평년대비 평균과 비슷하였으며, 낮 최고기온은 남서부 지역((La Pampa와 서부 Buenos Aires)의 경우 30°C 중반에 이르렀다. 더운 날씨와 시기적으로 건조함에도 불구하고, 남부 대다수의 지역에서는 주 초반 비가 내려 토양 수분의 수분이 적절하게 유지되었다. 아르헨티나 농림부에 따르면, 2월 12일 기준, 해바라기 수확률은 25%p(전년동기에는 24%p임)인 것으로 나타났다.

■ 브라질: 넓은 지역에 국지적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시즌 후반에 진입한 대두의 수분 공급을 촉진하였고, 발아와 수립상태에 진입한 (safrinha) 옥수수의 수분을 증가시켰다. Mato Grosso 와 남부 Rio Grande do Sul 지역의 총 강수량은 25-100mm를 기록하였다. Sao Paulo와 Minas Gerais와 같이 사탕수수와 커피 생산지역인 경우 총 강수량은 은 비슷하였으나, 북동부 내륙지역의 경우에는 더욱 소량의 비(25mm 미만)가 내렸다. 주간 평균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높았고, 낮 최고기온은 30°C 초·중반을 기록하였다. 브라질 전역에서는 제철인 대두의 수확과 옥수수의 파종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Mato Grosso는 브라질의 대두와 옥수수 주산지인데 이곳에서 야외 농작업이 진행되었지만 전년에 비해서는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12일 기준, 주 정부 발표자료에 따르면, 옥수수 파종율은 약 23%p(전년 46%p)이었고 대두의 파종율은 25%p(전년 36%p)가 완료되었다.